

목포 삼학도에 보행약자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청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삼학교~난영공원 3.0km 구간 전망타워·휴게시설 등도 확충

이번에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된 대삼학도(높이 71m)가 새단장 된다. 대삼학도는 참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으로 해변풍광이 뛰어나지만 정상까지 산길이 가파르고 거칠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조성되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삼학도 둘레길 1.2km는 '황토 맨발길'이 재조성되고, 정상까지 무장애길 1.8km를 신규 노선으로 구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망타워, 숲스데리텔링, 꽃길과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대삼학도에는 2020년에 1.0km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돼 황토평길과 꽃화단, 목포항을 보며 걷는 숲길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대삼학도 5.5ha에 이르는 공간이 봄에는 수선화와 백합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원추리와 맥문동, 나리, 가을에는 꽃무릇과 털머위, 겨울에는 맥문동이 피어날 수 있도록 꽃을 식재해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에서 중앙공원을 거쳐 천년의 숲 산림공원을 지나 대삼학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로 연결되어 장애물이 없는 삼학도가 만들어 지게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 삼학도 전경.

목포삼학도 전경. 학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로 연결되어 장애물이 없는 삼학도가 만들어 지게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 보리마당 보행도로로 국민 2023명 글귀 새긴다 12월까지 35글자 내 신청받아

목포시가 서산당 보리마당 도시재생지역 보행도로에 국민 2023명의 글귀를 새긴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7년 '서산당 보리마당'이 선정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산당 보리마당 보행도로 조성사업'과 관련, 이번 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서산당 보리마당 구역 내 지역 특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광장오피스텔 후면-유달동 행정복지센터 후면까지 길이 550m, 폭 4m 규격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국민들이 신청한 글귀를 각인할 예정이다. 목포시가 주개최자가 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글귀 신청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비방 글, 정치적인 글 등을 제외한 2023명의 글귀를 선정해 콘크리트패널에 각인한다는 계획이다. 각인 글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5글자 내에 자유롭게 희망하는 글귀를 작성한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방법 및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목포시 도시재생과(061-270-368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명현관(가운데) 해남군수가 해남미남축제에 참가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해남군 제공〉

땅끝서 가을 힐링...해남미남축제 24만명 찾았다

해남의 맛·멋 선 보이며 성료

'제5회 해남미남축제'가 땅끝 해남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5일 열린 이번 축제는 화창한 날씨의 첫날부터 6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사흘간 연인원 24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가 절정을 이룬 4일에는 14만여명이 찾아 해남미남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축제는 전국 최대 농어업군인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선보이는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미남주제관에서는 해남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푸드 100선을 선보이는 전시행사와 함께 이를 테마로 활용한 '미남다이닝' 행사가 처음으로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해남의 외식업체들이 참여한 미남푸드관과 읍면 단에서 해남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주전부리를 선보이는 미남주전부리관 등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군은 전했다. 축제 기간 두륜산 주변 상가와 음식점들도 음

료수 무료제공 등 친절 서비스에 나섰고, 음식 재료도 조기 소진되는 등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 아간에 선보인 축하쇼와 낭만콘서트 등에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 깊어져 가는 두륜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 해남의 풍요로운 계절을 담은 해남미남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진정된 축제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한대 가을낭만 문화자원 조사·봉사활동

휴먼서비스학과 향토음식 시음회도 성인학습자인 만학도로 구성된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지난 4일 부안 내소사와 함평 국향대전 등지로 '2023 가을 낭만 문화자원 조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들은 가을이 부안과 함평전지 일대에서 문화자원 조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내소사 일대에서는 문화답사와 함께 전통향토음식 시음회 등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 두은희 대표는 "유적지와 명승지를 찾아가서 삶의 흔적을 더듬고 역

사를 되새기는 이번 문화조사는 지역의 자연·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는 만학도로만 구성된 4년 정규 대학 성인학습자반으로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규과정을 마치면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여 전문기관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력 특성화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2개 기관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씨월드고속웨리·진도교육지원청과 진도군과 씨월드고속웨리(주), 진도교육지원청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진도군은 최근 씨월드고속웨리(주), 진도교육지원청과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종훈 씨월드고속웨리(주) 대표이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문 인재 양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에 힘쓰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진도 출신 청년의 취업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 3월 진도향과 제주 애월항을 잇는 항로 개설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신규카페리 취항을 앞두고 있다. 신규 카페리는 승객 600명과 화물차 40대, 승용차 100대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이다. 취항하게 되면 현장 인력 등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해 진도-제주 구간 패속카페리 취항에 따라 진도 출신 지역 인재 4명을 채용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재활용품 가져오면

티슈·종량제 봉투 드려요 완도군 연말까지 교환사업

완도군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무료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 재활용품 무료 교환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투명 페트병 10개, 폐 종이 팩 1000ml 기준 10개, 페스티로폼 3개, 아이스팩 3개를 각 티슈나 종량제 봉투로, 폐건전지 10개를 새 건전지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폐건전지 속에는 수은, 니켈, 카드뮴 등 많은 화학물질이 남아 토양에 버려지면 부식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나,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종이 팩은 우유 팩, 주스 팩, 두유 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쳐 건조하고, 아이스팩은 세척 후 말린 후 가져오면 된다. 위남관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하수도 국비 191억 등 318억 투입 정비

집중호우 때 범람 피해가 잦았던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하수도도 318억원 투입 정비된다. 영암군은 삼호읍 용양리 하수정비 '2023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상수 취수지역 원인 해결 사업을 추진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 오래된 관로를 개선하고 관경 확대, 빗물펌프장 설치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8월2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 신청을 받았다. 이후 9-10월 현장 조사와 선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용양리 등 21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침수 피해 발생 정도와 하수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환경부 지정에 따라 용양리 개선 공사에는 국비 191억원 포함 총 3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4.36km 구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1분당 빗물 처리 능력이 480㎥인 빗물펌프장 1곳을 신설한다. 우성호 영암군수는 "이번 지정은 기후위기 여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군민 불안감 해소, 재해 선제적 대응 등 안전한 영암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 평가 818팀 유치 영광군 우수상

영광군이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4000만원의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는다. 영광군은 지난 1년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과 함께 받은 사업비 4000만원은 오래된 체육시설 개·보수에 쓰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광군은 10개 종목 848개 팀을 유치했다. 유치 종목은 축구와 농구, 배구, 펜싱, 태권도, 체조, 탁구, 수상스키 테니스, 당구 등 다양하다. 연인원 12만8950명이 영광을 찾았고 118억원 상당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영광군은 분석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전남도로부터 '노력상'을 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에 2곳의 다목적 체육관과 5면의 축구 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을 갖췄다. 내년에는 스포츠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중만 영광군수는 "우수한 체육 기반시설을 토대로 매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를 힘쓰겠다"며 "영광을 방문하는 선수단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철원 기자 kw@